

3월 3일까지 '푸른 세상을 빛다' 전

3월 3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관 특별전 시실 2에서 진행 중인 '푸른 세상을 빛다'전은 고려 상형청자를 본격 조명한 특별전이다. 인물·동물·식물 등의 형상을 본떠 빚은 국보 11건, 보물 9건을 비롯해 개인 소장자와 중국·미국·일본 4개 기관에서 빌려온 소장품까지 총 274건이 출품됐다. 특히 이번 전시는 이전에 없던 새로운 기획으로 관람객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한다. 비색 상형청자의 숨겨져 있던 정체를 밝혀내고 살피는 3가지 코드를 정리했다.

“산예출향(山出香) 역시 비색(碧色)이다. 위에는 푸르디 푸른 짐승이 있고... 여러 그릇 가운데 오직 이 물건이 가장 정교하고 뛰어나다.”

1123년 고려를 찾았던 북송의 사신 서경이 '고려도경'에 적은 글이다. 900년 전, 서경을 사로잡았던 청자의 신묘한 푸른빛과 사자의 사실적 묘사는 대체 얼마나 대단했단 걸까.

고려시대 예술품을 대표하는 비색 청자 중에는 인물·동물·식물 등의 형상을 본떠 만든 것들이 있다. 바로 '상형청자'다. '상형'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대상의 모양(形)을 본뜨는(象) 것이다. 주전자·화병·연적 등 실용적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눈앞에 보이는 형태는 물론 상상·이야기 속 대상까지 자유자재로 빚어낸 조형성까지, '고려 상형청자'는 미학과 기술 모든 면에서 한국문화의 정수로 꼽힌다. 하지만 지금까지 상형청자만을 독립된 주제로 다룬 학위논문이 많지 않고 박물관 특별전도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푸른 세상을 빛다'전의 기획력은 돋보인다.

우선, 상형청자의 제작기법 미스터리를 과학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이 흥미롭다.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과 보존과학부는 2022년,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한국도자도록 1.2집'을 펴내면서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고려 상형청자를 다각적으로 조사·연구했다. 그 중 핵심 과제가 컴퓨터 단층촬영(이하 CT촬영)이다.

양식진 학예연구사는 "상형청자의 제작기법은 육안 관찰만으로 알아보기에는 한계가 있었는데 CT촬영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으로써 내부 태도를 다듬는 방법, 유약이 흐른 부분, 균열, 결합 방식의 특징 등을 통해 제작기법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었다"고 했다. 물체를 360도 회전시키면서 X선을 연속 투과해 약 3000장 가량의 2차원 이미지를 얻은 후, 이 자료를 수학적으로 계산해 외부·단면·내부 정보를 포함한 3차원 이미지로 재구성하는 방법이다.

그 결과, '청자 귀룡모양 주자'와 '청자 석류모양 주자'는 내부에 상·하부를 이은 경계선이 있었다. 귀룡·석류 기본 형태를 만든 후, 적당한 곳을 잘라 안쪽 흙을 파내고 다시 이어 붙여 마무리한 흔적이다. 음각·양각·투각·상감 등 모든 장식기법을 총 망라해 제작한 '청자 투각 칠보무늬 향로'의 경우는 몸체를 여러 층으로 감싸고 있는 꽃잎이 균일한 형태임을 알았다. 도반(틀)을 활용해 정교하게 꽃잎



국보 '청자 상감 국화·모란무늬 참외모양 병'과 CT 단면도. 외부는 참외처럼 울퉁불퉁하지만 내부는 평평하다.

인종의 장릉에서 출토된 국보 '청자 참외모양 병' 속을 파낸 참외처럼 내·외부에 균일한 두께의 굴곡이 있다.

# 고려 상형청자, 다시 봤다 CT로 밝혀낸 속살의 신비



국보 '청자 귀룡모양 주자'. CT 단면도 결과 내부에 상·하부를 이은 경계선이 보인다.

##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274건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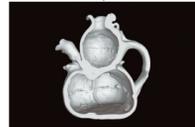
사진 3000여 장으로 3차원 재구성  
균열, 유약 흐름 등 제작기법 파악

참외모양 병 2개 굴곡 CT촬영 결과  
하나의 깎아서, 하나의 눌러서 표현  
전문가들 "흥내 낼 수 없는 경지"

을 찍어 하나씩 몸체에 붙이는 방법으로 제작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가장 흥미로웠던 결과는 고려 인종의 무덤인 장릉에서 출토된 '청자 참외모양 병'과 '청자 상감 국화·모란무늬 참외모양 병'의 닮은 듯 다른 점이다. 둘 다 물레를 돌려 만든 외형은 동일인데 내부 단면에서 큰 차이가 났다. '청자 상감 국화·모란무늬 참외모양 병'은 외부에는 물결모양 곡선이 있지만 내부는 평평하다. 몸체를 만든 다음 외부에서 표면을 깎아 참외모양 곡선을 만든 것이다.

반면 인종 장릉에서 출토된 '청자 참외모양 병'은 내·외부에 동일한 굽기의 곡선이 있다. 주둥이가 좁은 병이라 몸체를 이미 만든 후에는 손을 넣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내부 곡선은 어떻게 만들었을까. CT촬영 분석에 참여한 이혜순 학예연구사는 "굴곡이 일정하지 않은 것을 보면 외부에서 몸체의 표면을 일정 간격으로 눌러 참외의 굴곡을 표현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고 했다. 물레를 돌려 속이 빈 일정한 두께의 병을 만든 다음, 흙이 말릴땐 말릴 때 외부에서 손가락으로 눌러 굴곡을 만들었다는 얘기다. 이 학예연구사는 "들기에는 쉬워 보여도 흙이 너무 무를 때 표면을 누르면 모양이 허물어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구현하기 정말 어렵다"면서 "흙의 건



탐스러운 석류 네 알이 붙은 모양의 '청자 석류모양 주자'. 내부에 상·하부를 잘라 흙을 파낸 후 다시 이어 붙인 흔적이 보인다.

조 상태와 무르기를 가능할 줄 알고, 모양이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힘을 조절할 수 있는 숙련된 장인의 솜씨"라고 했다. 전시를 관람한 현대 도자작가들 역시 "합부로 흥내 낼 수 없는 경지"라며 혀를 내둘렀다고 한다.

국보' 청자 귀룡모양 주자, 소주 16잔 담겨  
이처럼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은 "고려 사람들이 원하는 상형청자의 형태를 완벽하게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기법을 고안하고 숙련된 기술을 얻기 위해 무한히 노력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라며 "상형청자의 조형성은 공예와 조각의 영역을 넘나드는 놀라운 기술력과 창의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감동적"이라고 했다. 이번 전시에선 총 10점의

상형청자 CT촬영 이미지·영상을 관람할 수 있다. 학예연구실과 보존과학부는 과학적 분석을 통해 관람객의 호기심도 해결했다. 이 상형청자 주자(주전자)와 병 안에는 과연 어느 정도 양의 물이 들어갈까? CT촬영으로 내부 부피를 계산해본 결과 '청자 귀룡모양 주자' 안에는 약 0.8L(소주잔 약 16잔), '청자 죽순모양 주자'에는 약 1.5L(소주잔 약 30잔), '청자 상감 모란·국화·무늬 조롱박모양 주자'에는 약 1.9L(소주잔 약 38잔)의 물이 들어간다. 전시 기획력이 돋보이는 두 번째 지점은 조형이다. 전시장 초입 '청자 어룡모양 주자'를 둘러싼 조명은 기존 박물관 전시조명과 전혀 다르다. 시시각각 색이 바뀌는 LED 컬러 조명으로 국립중앙박물관에서도 처음 시도한 것이다.

LED 조명 비추고, 청자의 다양한 쓰임 소개  
"가을소나기 마약 지나간 구멍 뚫린 가을하늘 한 조각"(시인 박종화), "비가 개고 안개가 걸리면 먼산마루 위에 담담하고 갓맑은 하늘빛"(전 국립중앙박물관장 최순우)이라고 할 만큼 고려 청자의 비색은 우리 하늘색과 가장 닮았다고 한다. 24시간 달라지는 햇빛은 하늘색을 조금씩 다르게 물들인다. 그렇다면, 어떤 고려인이 비색 상형청자를 햇빛 잘 드는 창가에 두었다 생각해보자. 아침부터 밤까지 햇빛의 양과 색은 달라질 테고, 그 빛을 받은 청자의 비색 또한 묘하게 변화하지 않을까. 국립중앙박물관 측은 관람객들에게 이 신비한 빛의 마술을 체험해볼 것을 제안하고 있다.

참고로, 홀로 LED 조명을 받으며 단독 방에 전시된 상형청자는 이 학예연구실장이 "청자계의 차은우"라 부르는 국보 '청자 어룡모양 주자'다. 용과 물고기가 결합된 어룡이 연꽃 위에 앉아 머리를 살짝 위로 향하고 꼬리는 치켜 올려 전체적으로 U자 형태를 하고 있는데 "조형성이 너무 완벽해서 어느 각도에서 사진을 찍어도(빛을 받아도) 다 아름답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전에는 잘 몰랐던 상형청자 제작과 쓰임의 다른 면모를 살펴볼 수 있다. 전시는 총 4부로 구성돼 있는데 '4부 신앙으로 확장된 세상'에선 종교 영역에서 상형청자가 어떻게 쓰였는지 살펴볼 수 있다. 서유리 학예연구사는 "우리가 아는 상형청자들은 대부분 무언가를 담은 그릇의 기능과 함께 미적인 요소를 갖추어서 용기와 완상품 두 가지 성격을 겸비하고 있는데, 상형청자 중에는 이러한 실용적·세속적 차원을 넘어 더 높은 정신세계를 추구하거나 신앙적 바람을 담아낸 것들도 존재한다"면서 "고려인의 사고방식과 생활태도에 큰 영향을 준 도교와 불교의 소재를 형상화한 것들"이라고 소개했다. 이들은 의례 또는 의식용 기물이거나 예경(禮敬·부처나 보살 앞에 예배하는 일)의 대상으로 만든 것들이다.

전설적인 곤륜산에 거주하며 불로장생의 복숭아를 준다는 서왕모 또는 서왕모와 관련된 인물을 나타낸 것으로 보이는 '청자 사랍모양 주자', 미국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 소장품으로 처음 한국 전시에 등장한 '청자 새를 탄 사람모양 주자' 등이 고려도교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면 '청자 나한상' '청자 여래상 조각' '청자 보살상 조각' 등은 불교의 영향으로 제작된 것들이다. 서 학예연구사는 "청자 불상은 고가의 금속 불상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무엇보다 표면에 금을 입히지 않아도 돼 저렴한 것이 강점이었다"면서 "동아시아에서 전통적으로 귀하게 여겼던 옥을 연상시키기에 옥으로 조각한 불상 대체재로도 인기를 누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한 시대의 문화는 다양한 삶의 모습을 반영한다. 그런 점에서 소박하면서도 근엄한 상형청자의 또 다른 면모는 흥미롭고 새롭다.

/서정민 기자 meantree@joongang.co.kr

<광주일보와 중앙 SUNDAY 제휴 기사입니다>



컴퓨터 단층 촬영 후 수집된 데이터를 3차원 이미지(아래 사진)로 재구성해 분석 중인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부 학예연구사들.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국제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